

# 석유산업동향 및 주요정책

-산업자원부-

## - 석유비축의무 위반 업체 사업정지 처분 부과 -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성왕에너지(주), (주)쌍용 등 2개 수출입업체는 석유사업법 제17조에 의해 전년도 내수판매량의 38일분의 석유를 비축하여야 하는데, 성왕은 2001.1월에, 쌍용은 2001.2월 각각 비축의무를 위반하였다.

이에, 산업자원부는 성왕은 01.4.30일까지, 쌍용은 01.5.9일까지 비축의무를 달성하도록 사전통보를 하였으나, 이를 달성하지 않았으므로, 1개월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부과하였다고 발표했다.

산업자원부의 처분에 따라서, 성왕에너지(주)는 8.16~9.15까지 1달간, (주)쌍용은 8.23~9.22까지 1달간 석유수출입업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석유사업법 제 17조에 의하여 1993년부터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의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석유비축 의무를 준수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매년 비축의무량을 고시하고 있으며, 2001년의 경우 석유정제업자와 수출입업자는 전년도 내수판매량의 38일분, LPG 수출입업자 및 석유화학사는 27일분을 비축하여야 한다.

2001. 7월말 현재 비축의무 대상자는 25개 업체로 석유정제업자 5사, 석유수출입업자 13사, LPG 수출입업자 2사, LPG 판매 석유화학사 5사이다.

민간업체에 대한 비축의무 부과이후 지금까지 10개 수입사가 비축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해 사전통보를 받았으며, 이 중 2개사는 과징금처분을, 성왕, 쌍용 등 3개사는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 5개사는 통보기한 내에 의무를 달성하였거나, 현재 사전통보 절차가 진행중이다.

## - 베트남에서 대규모 유전발견 성공 -

산업자원부는 '98년 9월부터 개발에 착수한 베트남 15-1광구에서 금년 7월 4.2억배럴의 대형 유전발견에 성공하였다고 8월 23일 발표하였다.

이는 국내기업이 우리 자본과 기술력으로 자이언트급 대규모 유전개발에 성공한 최초 사례로서, 향후 국내기업의 해외유전개발사업 참여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산업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는 김대중 대통령과 베트남 쩌 득 령 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8월 23일 15:00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한국-베트남 석유공동개발 성공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동 행사에서는 베트남 쩌 득 령 주석이 한국석유공사에 Friendship Medal을 수여하였으며, 김대중 대통령은 베트남석유가스공사(Vietnam Oil and Gas Corporation)에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여 석유개발을 통해 양국간의 산업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였다.

\* 석유개발에 기여한 한국석유공사 및 국내참여자 38명의 임직원들에게는 산업훈장, 산업포장 및 대통령 표창 등을 포상

이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베트남 석유개발에 공헌한 양국 석유개발 관련인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이번 베트남 유전개발을 계기로 국내외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2010년까지 석유자주개발을 10% 수준으로 제고시킬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또한 기념식장에 마련된 석유개발 전시물을 둘러보고 자원개발분야에서의 상호보완적인 협력은 양국 모두에게 의미있는 협력 모델이 될 것이며, 앞으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하여 오늘의 성공을 밑바탕으로 제2, 제3의 성공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더욱 더 정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금번 석유개발에 성공한 베트남 15-1광구는 한국석유공사와 (주)SK가 1998년 9월 유전개발에 착수하여 여러차례의 탐사와 시추작업을 거쳐 마침내 2001년

7월 4천미터의 해저에서 유해성분이 없는 良質(저유황 경질유)의 대규모 원유가 발견되었다.

※ 베트남 15-1광구 참여사 현황

- 한국 : 23.25%(한국석유공사 14.25%, SK 9%)
- 미국 : 코노코(Conoco) 23.25%
- 프랑스 : 지오펀트롤(Geopetrol) 3.5%
- 베트남 : 베트남국영석유가스회사 (PetroVietnam 50%)

15-1광구 유전은 발견확률이 0.05%에 불과한 대형유전(Giant급 : 전세계 4만여개 유전 중 1%에 해당)으로 우리 기술력을 전세계에 확인시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동 광구는 2003년부터 생산에 착수할 예정으로 투자비용을 제외하고도 약 8억불(1조4백억원)의 순수익이 예상되며, 인근 11-2광구 생산가스까지 포함할 경우 우리기업이 베트남 석유가스 개발 참여에 따라 벌어들일 수 있는 순수익은 11억불(1조4천억원)로 예상된다.

나아가, 한국석유공사 등 우리 참여사는 15-1광구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전량 도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확보함으로써, 석유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15-1광구에서 생산되는 일일 약

20만배럴의 원유를 도입할 경우 일일 평균 200만 배럴에 달하는 국내석유소비량의 10%를 베트남에서 도입하게 되므로, 현재 77%에 달하는 중동의존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향후 베트남유전 개발과정에서 약5억불 규모의 대형 해상구조물 등의 플랜트 발주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수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기업들이 플랜트·건설사업에서 많은 수주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금번 발견에 성공한 베트남 15-1광구 이외에도, 베트남에서는 한국석유공사·대우인터내셔널·LG상사 등 국내 8개 기업들이 11-2광구에서 1995년 가채매장량 9천억 입방피트(원유환산 1.5억배럴)의 가스 발견 후, 현재 베트남측과 가스매매계약을 협상중에 있으며 또한 한국석유공사가 미국 Conoco사와 공동으로 개발에 참여중인 16-2광구도 매장량이 약 3억4천만배럴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10월부터 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금번 베트남 유전개발 성공은 우리 기술력으로 탐사단계부터 참여해 이룩한 성과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20년 유전개발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하고, 국내기업의 해외유전개발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구하고 자금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민간기업의 해외유전개발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해나갈 예정이다. ♣